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심리학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인, 한국문화, 한국사회문제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연구합니다.



발 행 인 박영신 편집 최중숙, 신미자, 손주연

제 작 임 상 열

발 행 처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인천시 남구 인하로 100 서호관 314호

홈페이지 <http://www.kpacsi.or.kr>

대표메일 kpacsi@daum.net 대표전화 010-7668-5571

발 행 일 2017. 9. 1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 | 요 | 내 | 용

2 · 3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안내

4 · 6

201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안내

6 · 7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소식

8

모학회(한국심리학회)
소식

8 · 9

학회 공지사항

9 · 10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7대 조직도·기부자 명단

11 · 12

서평 - 권용은 교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소 | 식 | 제 | 공

한국문화및사회심리학회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회원분들의 새로운 소식 및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학회 이메일(kpacsi@daum.net)로 보내주시
면 학회운영 및 뉴스레터 발행 시 참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안내

문화예술체험과 함께하는 연차학술대회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 ▷ 일 시 : 2017년 10월 21일 (토) 12:30 ~ 19:30
- ▶ 주 제 :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뢰와 불신, 지도자 리더십
- ▷ 장 소 : 인하대 하이테크관 강당 (B1층)

▶ 등 록

- 사전등록 : 회원 30,000원 / 비회원 35,000원 /
중고등학생 25,000원
- 현장등록 : 회원 40,000원 / 비회원 45,000원 /
중고등학생 30,000원

※ 사전등록은 ① 참가비를 계좌로 입금하신 후
② 학회 홈페이지의 '학술대회 접수'에 입력하고
③ 사무국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자에게는 등록접수 순으로 기념선물을
드립니다.

※ 현장등록 시 자료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기간 : 9월 4일(월) ~ 9월 29일(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660401-01-817950

[예금주 손주연(문화및사회문제)]

▶ 포스터 발표 신청

- 1)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후 포스터
신청서를 이메일(kpacsi@daum.net)로 제출.
※ 비회원은 회원 가입 후 제출 가능함.

2) 포스터 발표 신청 및 심사 일정

- 포스터 발표 신청 서류 :

① 발표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A4 2매 이내의 초록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포스터 발표 신청 기간 :

9월 4일(월) ~ 9월 22일(금)

- 포스터 심사 결과 발표 : 2017년 9월 30일(토)

※ 심사결과는 개인 메일로 통보됩니다.

※ 학술대회 당일에 우수포스터 사상이 있습니다.

▷ 정태곤 소장학자상 응모 안내

- 1) 시상목적 : 학술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함양 및 우수한 인재 발굴
 - 2) 시상내용 : 정태곤 소장학자상 1명, 상장 및 상금 수여
 - 3) 응모자격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원으로서
심사용 논문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만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4) 응모기간 : 2017년 9월 22일(금)까지
 - 5) 응모방법 : 지도교수 추천서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심사용 박사학위논문 1부 (kpacsi@daum.net)로 파일 전송
- ※ [박정현 우수논문상] 2016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2권 1호~4호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 1편을 선정할 예정임.

▶ 학술대회 일정 (★ 상세 일정은 학회 홈페이지 www.kpacsi.or.kr 에서 확인 가능함)

등 록 12:30 ~ 13:00

제 1 부 13:00 ~ 15:10

사회 : 오현숙 (한신대학교 교수)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 박영신 회장

축 사 : 정갑순 (필리핀 CMIC대)

연극공연 읽어내다, Reader! (극단 배우공장)

- 주 제: 한국 사회 신뢰와 지도자의 리더십

- 시놉시스 : 망망대해, 어디인지 모를 해변, 5명의 사람들...

여행선박을 타고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충격에 배가 난파된다. 서로를 알지 못하는 5명의 사람들은 낯선 해변에서 눈을 뜨게 된다. 통신전파도 터지지 않는 미지의 섬에서 구조를 기다리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다. 28세의 백수 재민은 구조대가 오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며 사람들을 독려해보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친 무리들은 서로 배척하며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 재민은 막연히 구조대만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을 생존시키기 위해 위험한 리더십을 강행하는데....



포스터 발표 및 휴식

제 2 부 15:10 ~ 17:30

사회 :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양병무(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이종한(대구대학교 명예교수) 혁신적 지도자의 자질과 영웅 부재: 문화심리학적 설명

황상민(위즈덤센터 심리상담가)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

김흥규(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도덕지능 강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지능 강조로 리세스 오블리주를 통한 한국병 치유

종합토의

휴식시간

제 3 부 17:30 ~ 19:30

사회: 최종숙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노래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김정식(가수, 칼럼니스트)

전임회장 공로패 수여, 우수포스터 시상, 박정현 우수논문상, 정태곤 소장학자상 시상식

정기총회, 행운권 추첨 및 폐회사

저녁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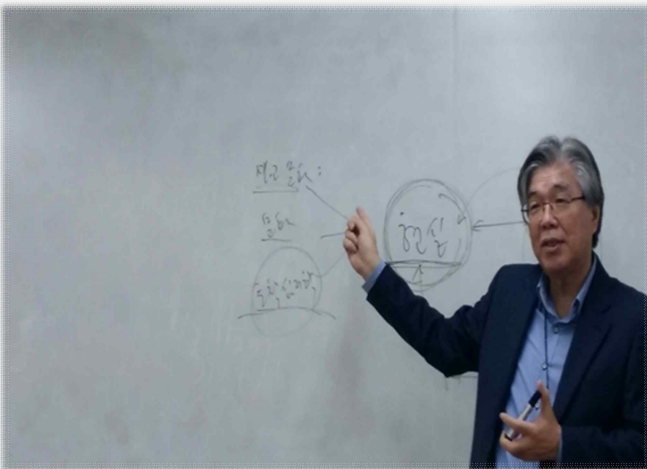
201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안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여

우리 학회의 모학회인 한국심리학회에서 연차학술대회(8.17-19)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워크숍 1개와 심포지엄 3개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를 통해 "제7분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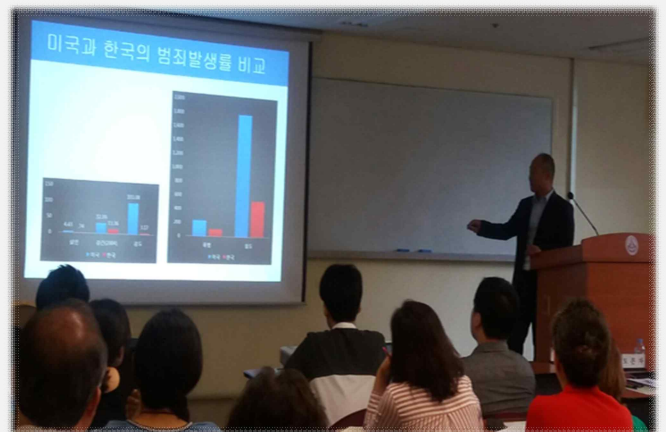
<워크숍>

- 주제 : 통일심리학과 종교심리학에 대한 이해
- 주관 : 한성열 (전 고려대학교) 박영신 (인하대학교)
- 사회 : 최중숙 (인하대학교)



<심포지엄1>

- 주제 : 범죄현상의 문화심리학적 이해
- 주관 : 윤상연 (치안정책연구소), 한민(우송대학교), 유지현 (서울지방경찰청)
- 토론 : 임금섭 (경찰대학교)
- 사회 : 윤상연 (치안정책연구소)
- 발표
 - ▷ 윤상연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의 범죄현상: 범죄통계를 통한 국가간 비교
 - ▷ 한민 (우송대학교), 범죄행동에 나타난 한국인의 심리
 - ▷ 유지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 피의자의 변명: 거짓말과 문화변인
 - ▷ 최대호, 이주현, 이상경 (서울지방경찰청), 피의자 면담을 통해 본 강력사건 범죄자 심리특성
 - ▷ 이혁진 (충북지방경찰청), 한국 범죄 피해자의 문화적 특성: 범죄피해 회복방식을 중심으로



201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안내

<심포지엄2>

- 주제 : 악마의 상상력: 가짜뉴스 심리학
- 주관 :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옥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성진 (대구MBC)
- 토론 : 박선웅 (고려대학교),
오세욱 (한국언론재단)
- 사회 :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발표
 - ▷ 김옥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짜뉴스 확산의 미디어 심리학적 분석
 - ▷ 도성진 (대구MBC),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본 미디어 소비심리 변화



<심포지엄3>

- 주제 : 한국인은 언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언제 행복한가?
- 주관 : 박영신 (인하대학교)
- 토론 : 오현숙 (한신대학교),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 사회 : 박영신 (인하대학교)
- 발표
 - ▷ 양환옥(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 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 임미향(인천석남초등학교) 송옥란(인하대학교) 허회숙(인하대학교),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 ▷ 이경란(인천동양중학교) 한미순(인천송도초등학교), 직장인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대처, 직업에 대한 회의와 보람
 - ▷ 신미자(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자녀양육효능감과 자녀양육의 보람
 - ▷ 이임순(인하대학교) 배용순(인하대학교), 청소년의 효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천사례
 - ▷ 박선영(K마음이해연구소), 한국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요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소식

1. 이사회 결과 보고
2. 학회지 안내

<2017년 제3차 이사회의 결과 보고>

- 일시 : 2017년 8월 19일 (토) 12:00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옆 우정당 학생식당
- 참석 : 총 59명 중 참석 23명, 위임 20명, 불참 16명 - 성원충족(43명)

1. 안건: 박정현·정태곤 소장학자상 명칭 및 시상 내용의 수정

2. 심의 인준 및 의결사항

현행	수정(안)
(명칭) 박정현 소장학자상 정태곤 소장학자상	(명칭) 박정현 우수논문상 정태곤 소장학자상
(시상내용) 박정현 소장학자상: 남 1명 정태곤 소장학자상: 여 1명	(시상내용) 박정현 우수논문상: 1명 정태곤 소장학자상: 1명
(심사대상) 박사학위를 받은지 3년 이내인 본 학회의 회원	(심사대상) 박정현 우수논문상: 전년도의 '한국심리학 회지: 문화및사회문제'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 중에서 1편 선정(단독연구인 경우는 단독으로, 공동연구인 경우는 공동으로) 정태곤 소장학자상: 최근 3년간 문화및사회문 제심리 분야의 박사학위논문 중에서 회원 들의 응모 1편 선정
(추천방법)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박사학위 논문 1부 (파일과 논문)	(추천방법) 박정현 우수논문상: 전년도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 문제'에 게재된 논문 중 상별및윤리위원 장과 편집위원장의 심의를 통해 선정 정태곤 소장학자상: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박사학위 논문 1부 (파일)

3. 결과 : 원안 가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학회지 안내**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권 2호 (2017년 5월)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목 차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매개 효과 및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안세환, 박동건)	인제환 · 박동건
수치심이 자비명상에 대한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 자비 대상(자기 vs. 타인)의 조절효과 (박도현, 김완석)	박도현 · 김완석
죽어 사회관계에 대한 심리적 연구의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1994~2015) 게재 논문에 대한 분석 (정안숙, 어유경, 한규석)	정안숙 · 어유경 · 한규석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이정하, 박정윤, 윤나나)	이정하 · 박정윤 · 윤나나
의료사고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김나연, 이수란, 최예은, 손영우)	김나연 · 이수란 · 최예은 · 손영우
침묵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최명옥, 박동건)	최명옥 · 박동건
청년기의 수면과 행복: 기억의 긍정성 편향을 중심으로 (신지은, 김정기, 임남연)	신지은 · 김정기 · 임남연
성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대처: 자기효능감 수준별 분석 (박영신, 손주연, 송옥란)	박영신 · 손주연 · 송옥란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7년도 학회지 발간 계획 및 논문투고 안내]

▷ 발간회수 : 연 4회(23권 1호 ~ 23권 4호)

▶ 학술지 논문투고 안내

✕ 투고자격 : 2년 이상 연회비 미납이 안 된 본 학회 회원

※ 주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접수된 논문은 저자들(주저자 & 공동저자)의 회원가입 여부 및 연회비 납부 상황 확인 후 심사 진행

✕ 제출서류 : 투고논문, 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 심사비 : 논문 1편당 9만원(심사위원 3인*3만원)

[편집위원회 정보]

- ✕ 편집위원장 : 허태균
- ✕ 편집 간사 : 이선경
- ✕ 입금 은행 : 신한은행(이선경) 110-194-339304
- ✕ 접수처 : sunkyung_lee@naver.com
- ✕ 연락처 : ☎ 010-7329-0922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제23권 2호 (2017년 5월)**

1.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매개 효과 및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안세환, 박동건)
2. 수치심이 자비명상에 대한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 자비 대상(자기 vs. 타인)의 조절효과
(박도현, 김완석)
3.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1994~2015) 게재 논문에 대한 분석
(정안숙, 어유경, 한규석)
4.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이정하, 박정윤, 윤나나)
5. 의료사고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김나연, 이수란, 최예은, 손영우)
6. 침묵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최명옥, 박동건)
7. 청년기의 수면과 행복: 기억의 긍정성 편향을 중심으로
(신지은, 김정기, 임남연)
8. 성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대처: 자기효능감 수준별 분석
(박영신, 손주연, 송옥란)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는 KCI(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모학회(한국심리학회) 소식**1. 201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개최**

2017년 8월 17일(목)~19일(토) 3일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제 71주년 연차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1,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운영되었습니다.

2. 2017 한국심리학회 정기총회

2017년 한국심리학회 정기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시 : 2017년 8월 18일(금) 17:30-19:00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C홀
- 차기 학회장
 - * 조현섭 (충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 * 임기 : 2018년~2020년

<한국심리학회 사무국>

- ☒ 학 회 장 : 김재휘
- ☒ 홈페이지 : www.koreanpsychology.or.kr
- ☒ 대표메일 : kpa0102@chol.com
- ☒ 대표전화 : ☎ 02-567-0102
- ☒ 대표팩스 : ☎ 02-567-0103
- ☒ 학회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층

학회 공지사항**■ 소식지 발행 일정 ■**

년 4회	발행 일정	발행 호수
1회	신년특집호 (2월 1일)	01호
2회	춘계학술대회 후 (5월 1일)	02호
3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후 (9월 11일)	03호
4 회	연차학술대회 후 (11월 1일)	04호

■ 회원 참가 원고 수시 접수 ■

회원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회활동이나 회원동정에 관한 소식, 그리고 생활 속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보내주시면, News Letter를 통해 학회 회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 학회사무국안내 ■

☒ 대표메일 : kpacsi@daum.net

☒ 대표전화 : ☎ 010-7668-5571

☒ 학회계좌 : 국민은행

660401-01-817950

※ [예금주] 손주연(문화및사회문제)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서호관 314호

학회 공지사항

빛의 속도로 업데이트 되는 우리 학회 홈페이지!

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행사 및 회원님들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알리고 최신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실시간 수준으로 업데이트 관리됩니다.

빛의 속도로 업데이트 되는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서 살아 숨쉬는 신선한 소식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우리 학회 홈페이지는 '회원님들에 의한', '회원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매일매일 놀러오세요~!

회원 가입 & 연회비 납부 안내

※ 사무국 :
회원자격
심사 후,
회원에게
회비 안내
메일 발송



■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

㉠ 정회원 : 5만원(입회비 1만원 + 연회비 4만원)

㉠ 준회원 : 2만원(입회비 1만원 + 연회비 1만원)

※ 본 학회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를 우편 구독으로 신청할 경우: 1만원 추가 납부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의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만 납부 가능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7대 조직도
(2017.1.1. ~ 2018.12.31.)

1. 운영위원

번호	직함	성명	소속
1	회장	박영신	인하대
2	부회장	허태균	고려대
3	총무이사	최중숙	인하대
4	정보이사	임상열	인하대
5	재무이사	오현숙	한신대
6	홍보이사	박선영	K마음이해연구소
7	대외이사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8	학외이사	김세용	QBS
9	편집위원장	허태균	고려대
10	학술위원장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
11	상벌및윤리위원장	박선웅	고려대
12	학회발전기획위원장	문은식	강원대
13	자격제도위원장	이재식	부산대
14	공공정책위원장	김범준	경기대

2. 고문

번호	직함	성명	소속
1	고문(전임회장)	이종한	대구대
2	고문(전임회장)	이순철	충북대
3	고문(전임회장)	김의철	인하대
4	고문(전임회장)	한성열	고려대
5	고문(전임회장)	정태연	중앙대
6	고문(전임회장)	방은령	한서대

3. 감사

번호	직함	성명	소속
1	감사	서경현	삼육대

4. 이사 (가나다 순)

번호	직함	성명	소속
1	이사	곽금주	서울대
2	이사	권용은	안산대학교
3	이사	김영란	숙명여대
4	이사	김의연	인하대
5	이사	김정식	광운대
6	이사	김정실	인천논곡초
7	이사	김정희	김정희심리상담센터
8	이사	김형수	인천일보
9	이사	김효창	프로이드심리검사연구소
10	이사	남순현	이화여대

4. 이사 (가나다 순)

11	이사	남인순	네티우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12	이사	박세호	인하대
13	이사	박영자	선박안전기술공단
14	이사	박은실	인하대
15	이사	박희현	동신대
16	이사	배용순	수원대학교
17	이사	서은국	연세대
18	이사	신영이	인천부곡초
19	이사	안자영	마음과행복심리상담연구소
20	이사	양환옥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21	이사	우남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2	이사	유효숙	군서중
23	이사	윤길근	부천대
24	이사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5	이사	이경란	인천동양중
26	이사	이문영	인성여중
27	이사	이상란	인하대
28	이사	이상희	미래아동청소년발달센터
29	이사	이은석	(주)삼영피에이씨
30	이사	이임순	인하대
31	이사	이종구	대구대
32	이사	이흥표	대구사이버대
33	이사	임미향	인천석남초
34	이사	장화순	한서대
35	이사	전성숙	인하대
36	이사	정갑순	필리핀 CMIC 대학교
37	이사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38	이사	조상현	(주)SAC시스템
39	이사	조은형	솔샘나우리아동종합복지센터
40	이사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41	이사	진미경	숙명여대
42	이사	차연실	인하대
43	이사	채정민	서울사이버대
44	이사	최훈석	성균관대
45	이사	한미순	인천송도초
46	이사	허회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 사무국

번호	직함	성명	소속
1	총무이사	최종숙	인하대
2	총무간사	손주연	인천송천초
3	총무간사	신미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6. 편집위원회

번호	직함	성명	소속
1	편집위원장	허태균	고려대
2	편집위원	곽금주	서울대
3	편집위원	김의철	인하대
4	편집위원	박광배	충북대
5	편집위원	박영신	인하대
6	편집위원	서은국	연세대
7	편집위원	손정락	전북대
8	편집위원	양윤	이화여대
9	편집위원	이순철	충북대
10	편집위원	이종한	대구대
11	편집위원	한성열	고려대
12	편집위원	홍성열	강원대
13	편집간사	이선경	고려대

■ 학회 기부자 명단 ■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기부 내역 >
(2017년 5월 ~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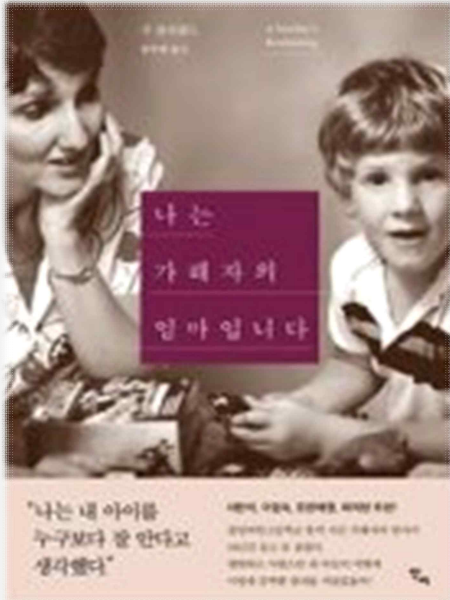
번호	기부자 (소속)	기부금액
1	허태균 부회장 (고려대학교)	100만원
2	정갑순 이사 (필리핀 CMIC 대학교)	300만원
3	익명	100만원
4	이상란 이사 (인하대학교)	50만원
5	안자영 이사 (마음과행복심리상담연구소)	100만원
6	박영신 회장 (인하대학교)	50만원
7	주경필 학술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0만원
8	윤상연 이사 (치안정책연구소)	10만원
9	조상현 이사 (주)SAC시스템	고급디퓨저 (사전등록자 모두) 300개

※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학회 회원 소식 ■

축하합니다! 본 학회 최훈석 이사님(성균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께서 아시아사회심리학회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의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 되셨습니다!





서평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원제: A Mother's Reckoning (reckoning:값음, 벌)

부제: Living in the Aftermath of Tragedy 비극의 여파 속에서 살아가기

권용은

안산대학교 영유아학부 교수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럼비아 고등학교에서 두 명의 남학생이 자신의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다. 1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으며 두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후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사건의 원인을 두 학생의 폭력적인 비디오에 중독과 악마숭배 컨셉트의 밴드와의 심취였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사건의 원인으로 「볼링포 컬럼바인」이라는 영화에서 따돌림의 학교문화 과 총기 허용 사회문화를 지적하였다.

이 책은 범행을 저지른 두 학생 중의 한 명인 딜런의 어머니인 수 클리볼드가 사건 이후 16년간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의 감정들을 기록한 「1부: 상상도 하지 못한 일」과 좀 더 이성적으로 문제를 알아가고자 하는 즉 퍼즐조각을 찾아가려는 「2부: 이해를 향해」로 되어 있다.

■ 사건이 일어난지 6개월 후의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쓴다.

지금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톰(남편)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계속한다. 딜런은 그렇게 사랑받았지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딜런이 누군가를, 무엇을 사랑했을 것 같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오늘 화면에서 본 그 아이를 나는 모른다. 내 머릿속 마음속에서 딜런과 나의 관계가 바뀌었다.

■ 고통스러운 그녀에게는 많은 이들의 친절한 편지와 격려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쓴다. (9장 비탄을 안고 살아가기)

나는 두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다. 첫째로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 둘째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힘과 용기로 버텨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줄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내 정체성이 벗겨지고 나자 내가 평생 얼마나 나 자신에 몰두하고 지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랐고 공동체에서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기쁨을 느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택했다. 내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 내 아이들과 톰과 내가 꾸린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가 좋은 엄마라고 자부했다.

콜럼바인 이후에는 이 모든 게 어휘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냥 나쁜 엄마가 아니라 세상의 최악의 엄마이고 지역 신문 1면에 증오의 대상으로 실리는 사람이었다. 존경과 사랑은커녕 주변 사람들이 혐오와 비난 가운데 약간의 공감이라도 느껴 주기를 바라는 게 최선이었다. 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도전은 훨씬 더 힘들었다. 나는 영원히 딜런이 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소에 찍힌 낙인처럼 콜럼바인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내 아들이 한 일이 내 존재에서 지울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말고는 나머지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전의 나와 새로운 나를 하나로 합하는 것 뿐이었다.

- 그녀는 사건을 받아들이고 현실 부정을 끝내고 아들의 범행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쓴다.
(10장 현실 부정의 끝)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지만 딜런이 학살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딜런이 자신의 어떤면을 우리에게, 그리고 선생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친구들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감출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모은 서로 충돌하는 조각들을 짜 맞춰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다. 내 슬픔과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를 알기 위해서도

- 비극 이후 몇 달이 지난 뒤, 그녀는 회사휴게실에서 본 학술지의 다음 구절을 우연히 읽게 된다.

콜럼바인 비극을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나 느슨한 총기관리법 같은 외부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그날 일어난 엄청난 사망과 부상 가운데 자살로 죽은 두 소년이 있었다.

- 그녀는 자살로 자식을 잃은 직장 상사인 친구인 샤론이 준 자살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되고 이후 아들 딜런의 일기와 기록,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퍼즐을 맞추는 사건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얻어진 사실을 알려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다. (결론 모든이에게 더 안전한 세상)

살인- 자살 유족은 비극의 동인이 자살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은 그런 행동을 오직 살인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살인-자살이 자살의 한 형태라고 보고자 하는 까닭은 자살방지가 살인- 자살 방지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싶기 때문이다. -중략- 일부는 어쩌면 속죄였을 것이고, 일부는 자기 보호였을 것이다. 최악의 것을 미리 알고 나면 무심코 당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중략)

우리는 아이들에게 치아관리, 영양균형, 용돈관리 의 중요성등을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자기 뇌의 건강을 잘 살피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기 뇌건강을 건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는 몰랐다. 내 삶에서 가장 큰 후회는 딜런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하루도 격한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다 내가 딜런에게 잘못된 무수한 것들과 딜런이 남긴 파괴 돌 다에 대해. 16년이 지난 지금도 날마다 딜런과 에릭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한다.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한다.

-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책에서 그녀는 딜런의 우울과 자살성향을 미리 알아내고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그녀에게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 중산층의 완벽한 자녀와 부모관계의 강박적인 모습이 행간에서 읽혀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솔한 글은 매우 감동적이다. 범죄자의 어머니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지만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녀는 대단한 어머니이다. 그리고 실패한 어머니로서 자신처럼 실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우리에게 주변의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도움을 줄 것을,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